

VI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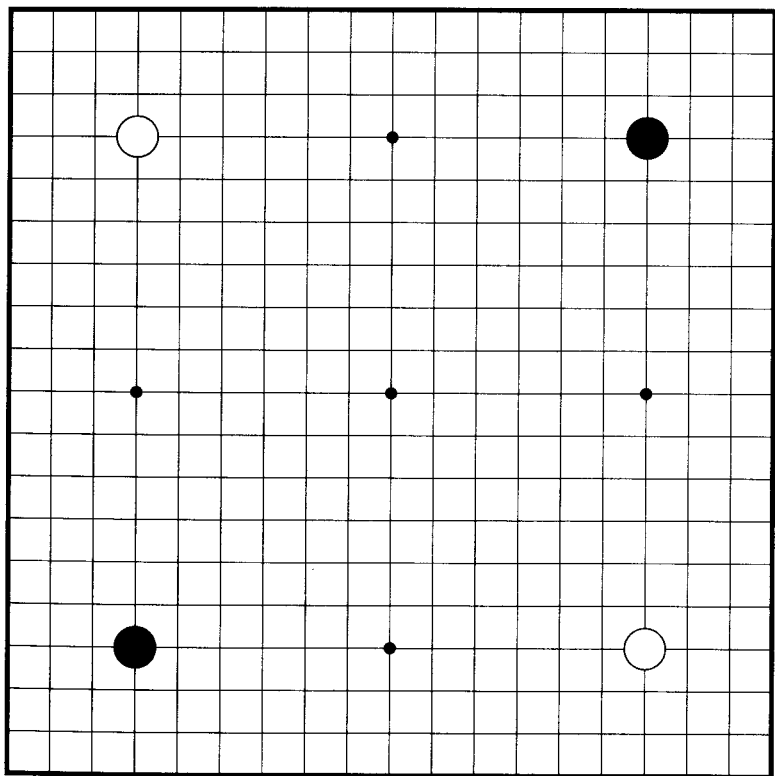
LANZAROTE
Calien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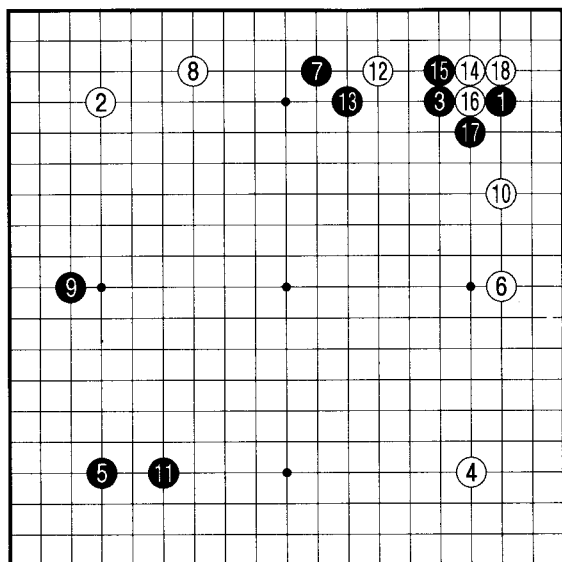
대각선 포석편

대각선 포석은 한 마디로 전투형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포진의 장점은 커다란 진형을 만들기 어려운 대신 쌍방 서로 상대의 돌을 공격할 수 있는 진행이 항상 가능하여 발빠르고 공격적인 기풍에게 어울리는 포석이다. 이 포석의 단점은 초반부터 판 전체의 구도가 잘게 나뉘어지므로 전투가 용이하지 않게 되면 내용이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각선 포석 — 전투형 포석

쌍방 대각선의 귀를 차지함으로써 대각선 포석이 이루어졌다. 대각선 포석은 전투형 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으로선 이러한 포석을 피하고 싶다면 두번째 수를 흑의 대각선 귀에 두면 된다. 그럼 이와 관련한 실전 포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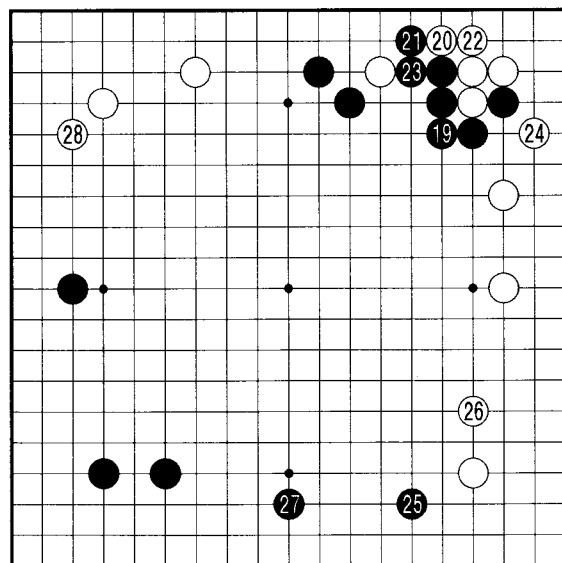




〈1보〉

1보(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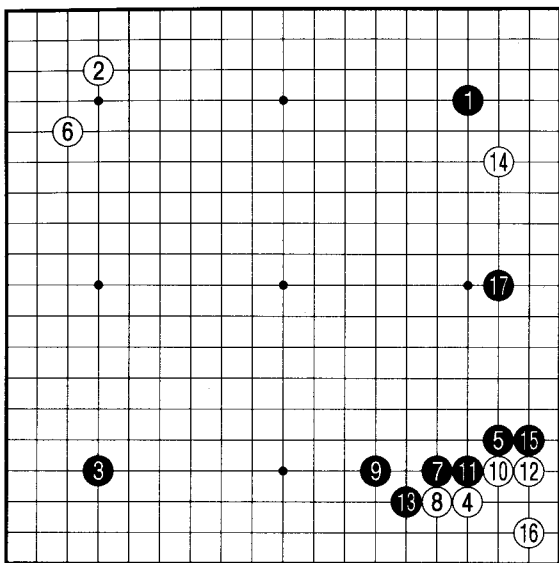
1896년 본인방 슈에이(秀榮)와 이시이(石井千治)가 둔 바둑이다. 백의 대각선 화점은 슈사쿠와 슈호(秀甫)를 거쳐 슈에이 때에 이르러 비로서 유연한 흐름을 갖기 시작한다. 귀에서 변으로의 흐름이 빨라진 것이다. 백8과 10을 배경으로 침입하여 귀를 뺏고 흑의 진영을 좌하로 편재시키고 있다.



〈2보〉

2보(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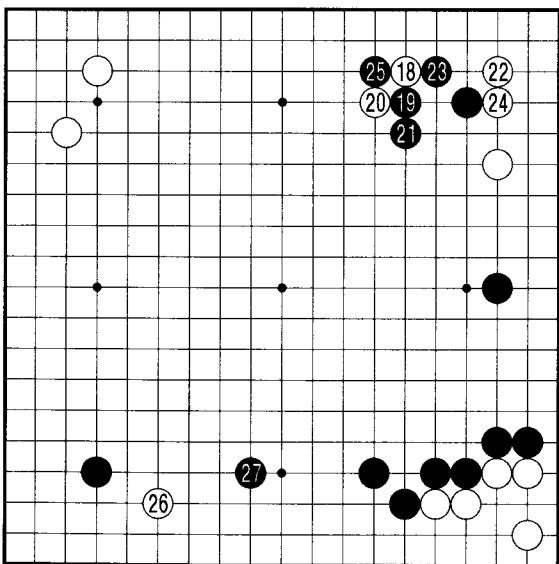
흑25·27에 대해서도 백28로 지키는 것은 아직 삭감이나 침입을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1보〉

1보(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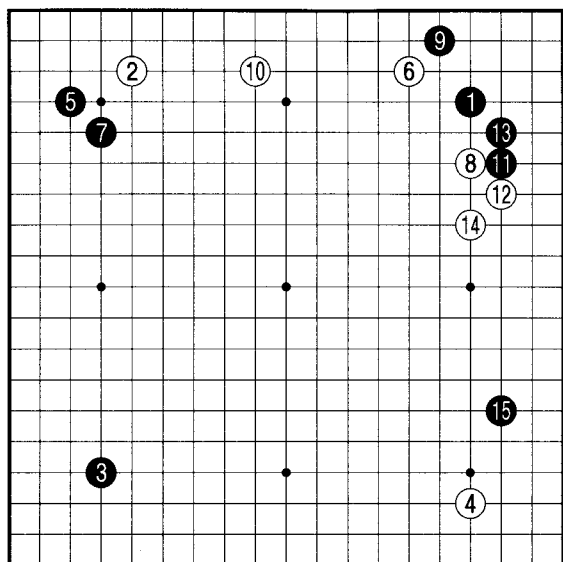
1932년 신포석이 유행했던 시기에 평소 연구욕이 왕성했던 구보마츠(久保松勝喜代)가 가토 진(加藤信)을 상대로 시도한 흑의 대각선 화점 바둑이다. 우하귀의 진행이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전투적으로 흐르는 진행이 대각선 화점 포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2보〉

2보(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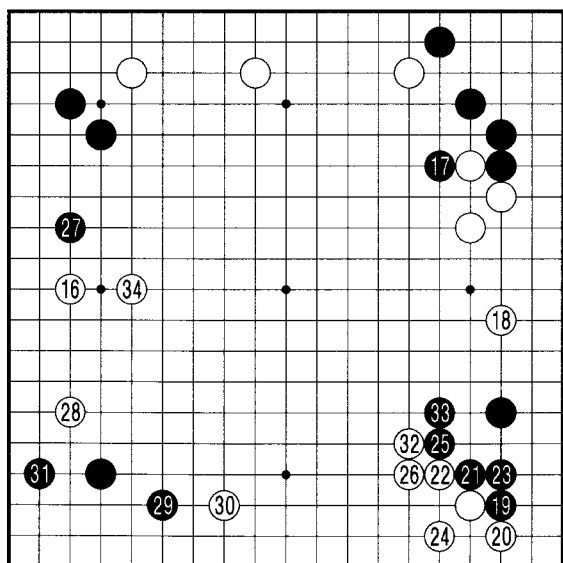
우상귀 흑25까지의 진행이 현대적인 감각과 흡사하다.



〈1보〉

1보(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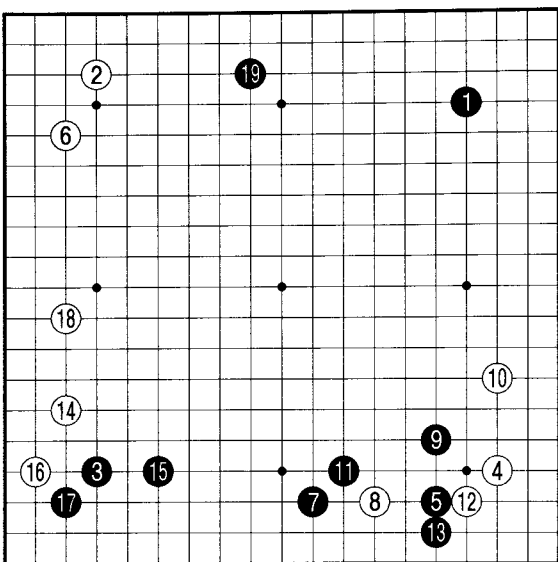
1933년 당시 백의 이와모토(岩本薫) 6단을 상대로 우창위엔 5단이 시도한 흑의 대각선 포석이다. 이 당시 흑9의 처진 날일자나 15의 걸침은 거의 신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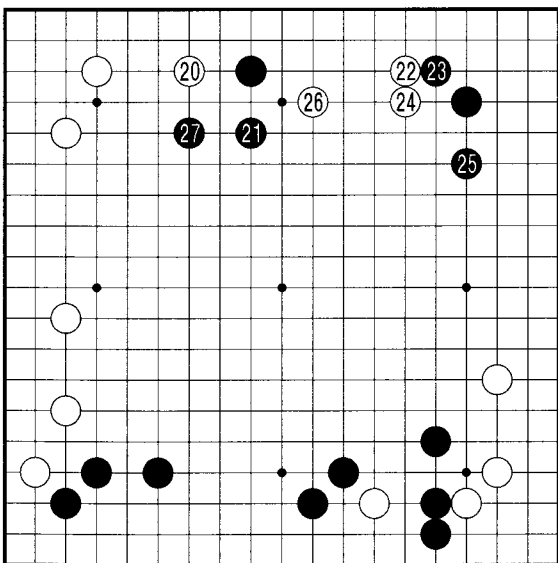
〈2보〉

2보(16~34)

우하귀의 정석은 현대에도 자주 사용되었던 진행이다.



〈1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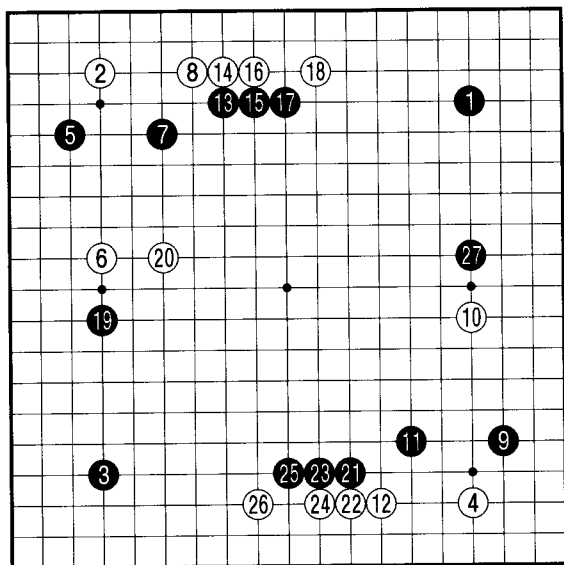
〈2보〉

1보(1~19)

1958년 백의 기타니 미노루를 상대로 본인방 슈가쿠(秀格)가 둔 흑의 대각선 화점 포석이다. 슈가쿠는 이 당시 흑이나 백을 가리지 않고 화점을 선호했던 대표적인 기사이다. 흑19의 전개가 현대적인 감각과 일치한다.

2보(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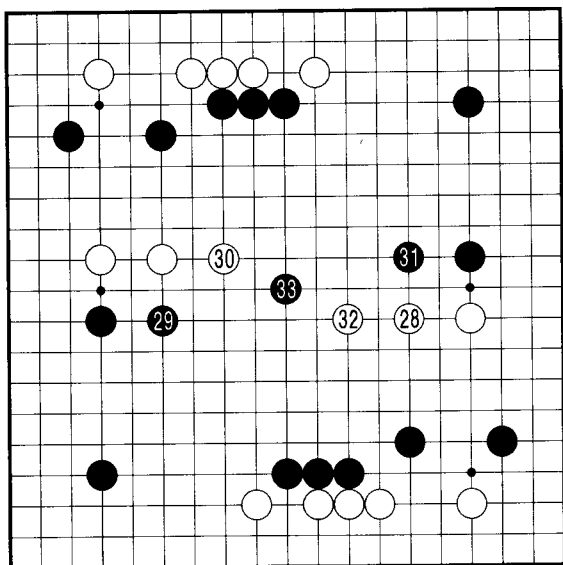
흑21로는 현대적 감각에 비추어 백24의 곳일지도 모르지만 이 수가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1보〉

1보(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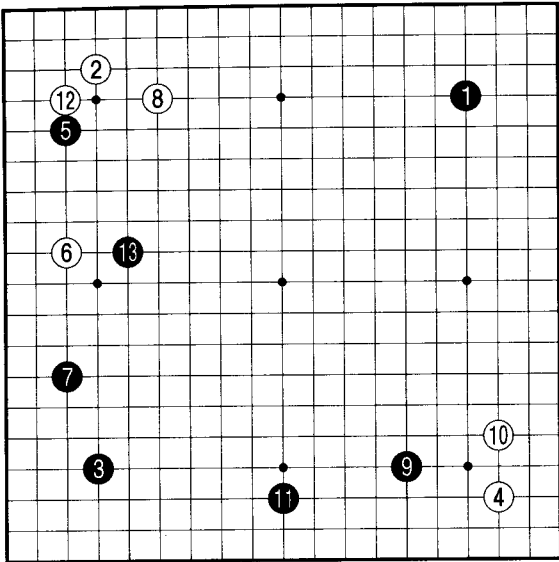
1973년 백의 가토 마사오 8단(당시)을 상대로 흑의 다케미야 마사키 7단(당시)이 시도한 대각선 화점 포석이다. 흑7로 뽀 장면에서부터 13부터 압박한 후 19로 역협공하여 전투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진행이 자연스럽다.



〈2보〉

2보(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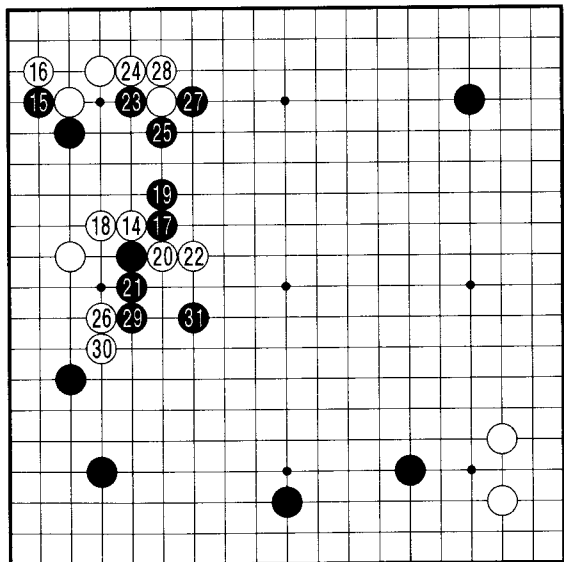
중앙을 흑33으로 갈라 양쪽의 백돌을 공격하는 흑의 작전이 돋보인다.



〈1보〉

1보(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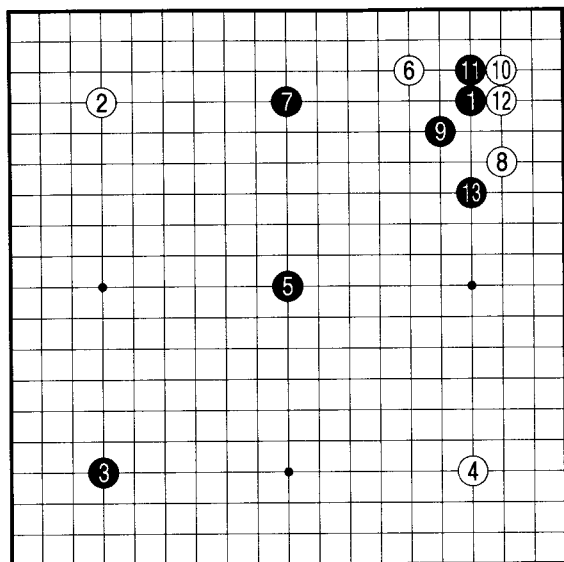
1977년 일본 기성전 결승에서 백의 하시모토 우타로(橋本宇太郎)를 상대로 후지사와 슈코(藤澤秀行)가 구사한 흑의 대각선 포석이다. 백12에 응수하지 않고 흑13으로 씌어간 수가 슈코답게 호쾌하기만 하다.



〈2보〉

2보(1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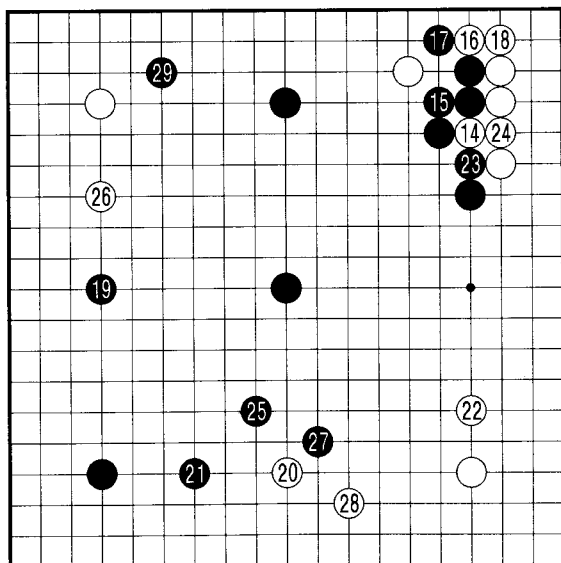
흑19로 머리를 내밀고 백20의 절단에는 강하게 싸워 흑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1보〉

1보(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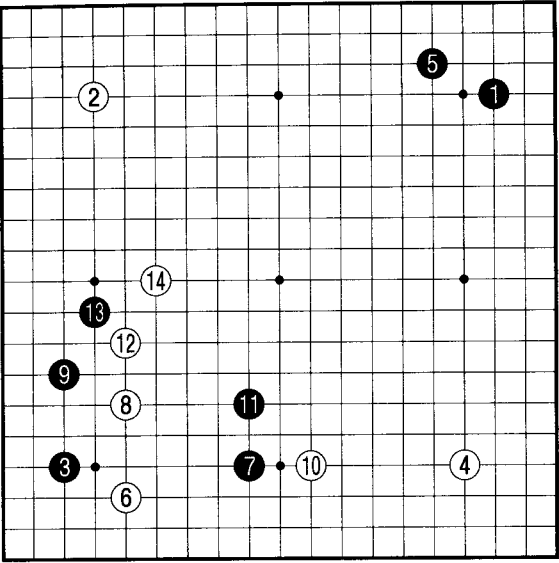
일본 천원전에서 백의 구도 노리오(工藤紀夫)에게 다케미야 마사키가 구사한 흑의 대각선 3연성 포석이다. 특수한 포석감각이지만 변을 7과 9로 선점하여 세력작전으로 가려는 것이다.



〈2보〉

2보(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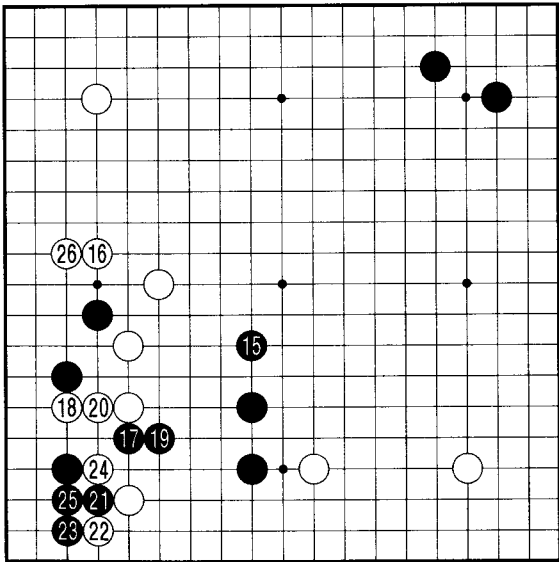
수순 중 흑25의 감각이 탁월하다. 흑29까지 흑은 일관된 세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1보>

1보(1~14)

제1기 테크론배 결승1국에서 백의 조훈현을 상대로 유창혁이 구사한 대각선 소목 포석이다. 흑7의 협공은 일반적인 추세였으며 흑13까지 무난한 흐름인데, 여기서 조훈현의 신수가 등장하는데 백14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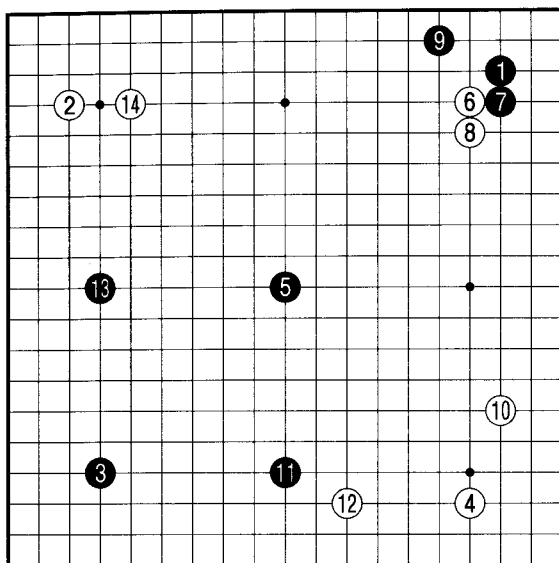
<2보>

2보(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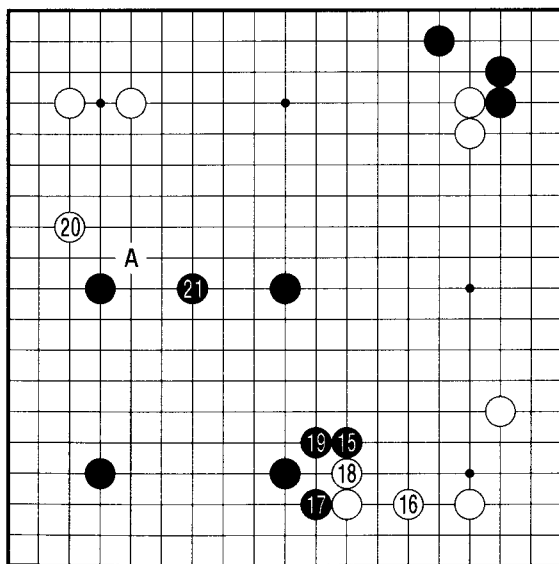
흑15로 뛰었으나 백16으로 막혀 주도권이 백에게 넘어간 듯한 흐름이다.

특수 포석편

특수 포석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널리 두지 않는 포석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진이 좋다 나쁘다는 정설은 없다. 넓게 말하여 양외목이나 양고목 등도 특수한 포석이라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많은 기사들에게 연구되어 이론화되거나 검증된바 없어 자료가 부족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수한 포석은 이미 300여년 전의 일본바둑사료에 의해 고증되어 있다. 이러한 포석의 사고는 1930년대 신포석의 사고와 비교할 때 2연성, 3연성 포석이나 중국식 포석도 특수 포석이며, 특수한 포석 중 몇 개가 일반적인 포석으로 잡리잡은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특수한 포석의 예도 적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실전보를 10국 정도 선정하였다.



〈1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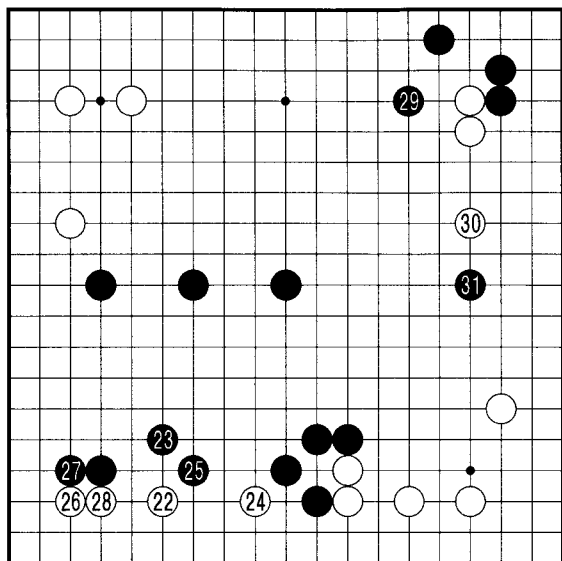
〈2보〉

1보(1~14)

당시 본인방가에서 금기시하던 3·三, 화점, 천원을 첫수부터 차례로 두어 물의를 일으켰던 바둑이다. 1933년 10월 16일부터 1934년 1월 29일까지 두어진 이 대국은 백160의 수를 슈사이의 문하에 있던 마에다 노부아키가 발견하였다는 등 많은 화제를 남겼다. 흑 1·3·5와 더불어 11·13의 포진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고였다.

2보(15~21)

흑21은 현재의 감각으로 판단하면 세력에 너무 편중된 수로, 흑A로 두는 진행이 보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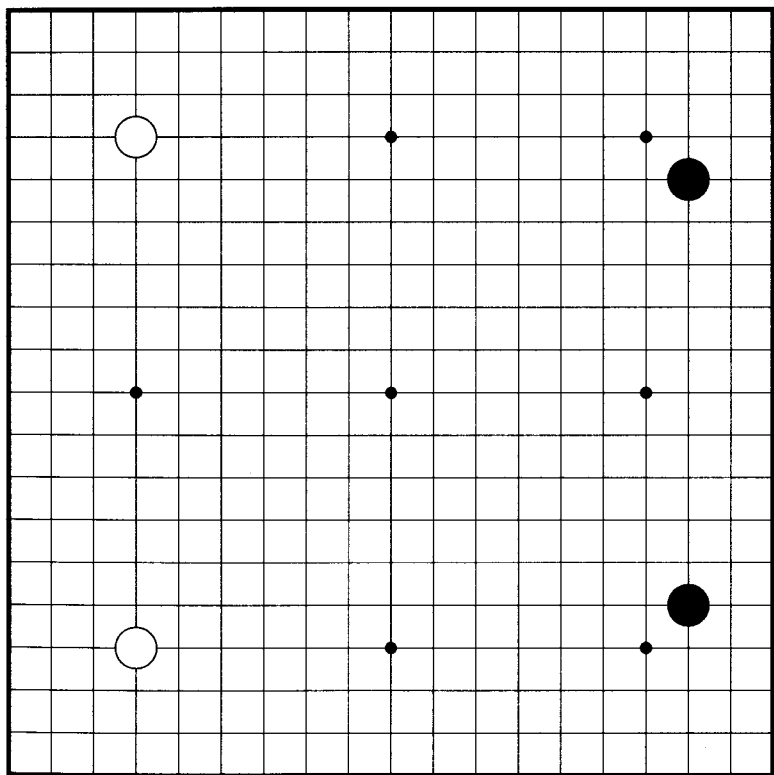
〈3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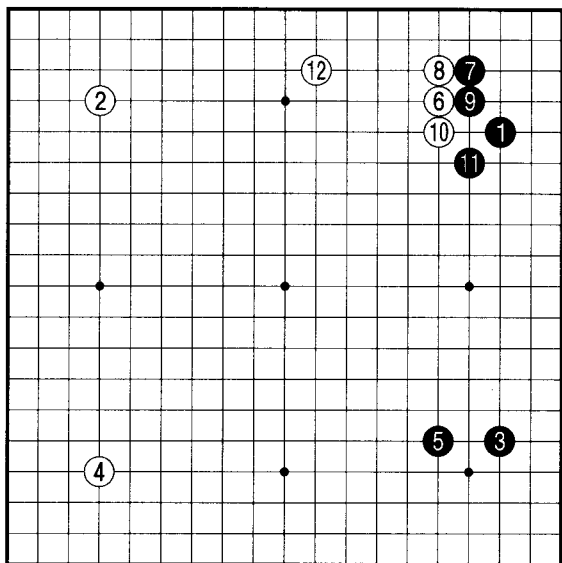
3보(22~31)

백24의 침입은 절대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의 접전은 피차 최선이라 할 수 있다. 흑은 좌하를 내어준 대가로 우상의 백을 흑29·31로 공격하는 흐름을 얻고 있다. 이 진행은 천원의 흑 한점이 어느덧 우상의 백을 공격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양외목 포석 — 변을 중시하는 포진

흑이 양쪽의 귀를 모두 외목에 착점한 모습이다. 양 외목 포석은 외목의 성격상 귀보다는 변을 중시하는 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전 진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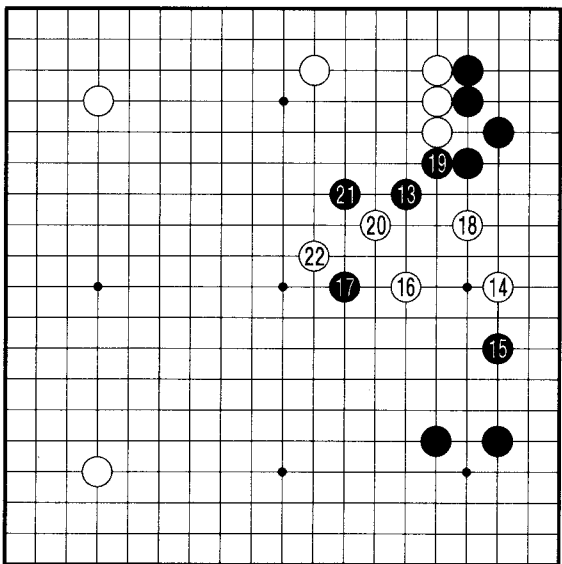




〈1보〉

1보(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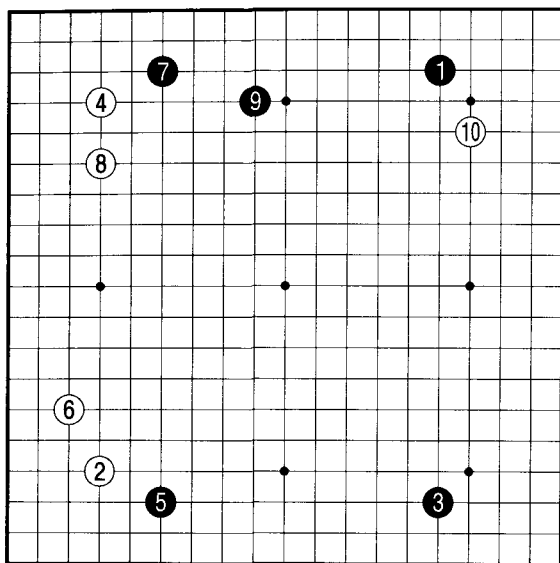
제36기 최고위전 도전 제1국에서 백의 조훈현을 상대로 이창호가 구사한 양외목 포석이다. 흑5의 포진은 토치카형 군함을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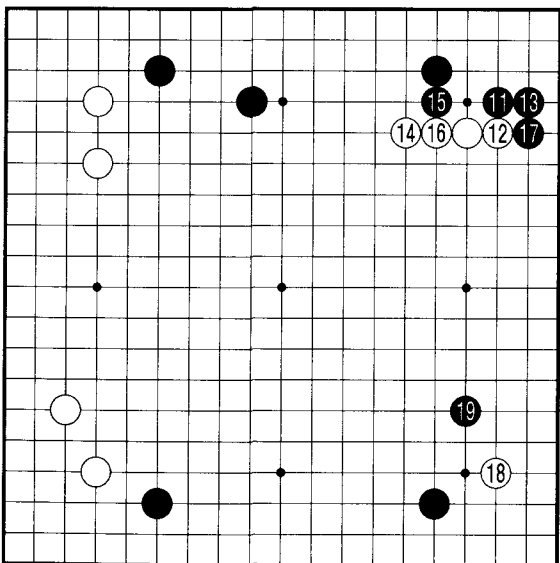
〈2보〉

2보(13~22)

흑13의 확장에 대해 백14로 침입한 것은 당연하다. 우변을 모두 집으로 굳혀줄 수는 없으므로 이곳에서 때 이른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1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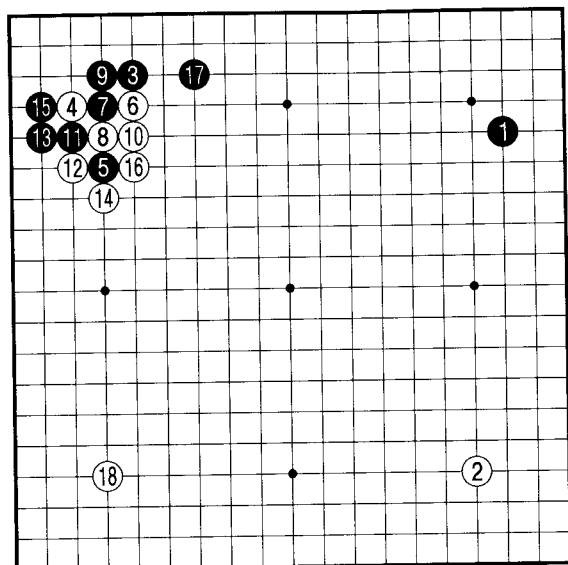
〈2보〉

1보(1~10)

제53기 일본 본인방전도전 제1국에서 백의 왕리청(王立誠)을 상대로 조치훈이 구사한 양외목 포석이다. 이 바둑은 흑이 양외목을 두었으면서도 교묘히 실리로 전환하고 있는 느낌이다.

2보(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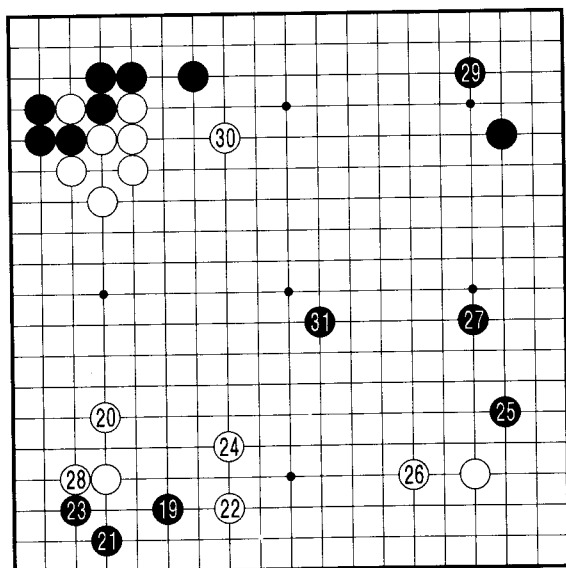
흑이 실리작전으로 전환하자 백도 18로 낮게 걸친다. 이때 다시 흑의 대사씩움. 조치훈의 변신술이 약여하게 나타나고 있다.



〈1보〉

1보(1~18)

제3회 동양증권배에서 백의 유창혁에게 아와지 슈조(淡路修三)가 구사한 엇갈린 양외목 포석이다. 흑이 처음부터 5로 씌어 오자 백은 복잡한 대사정석을 피하여 세력작전으로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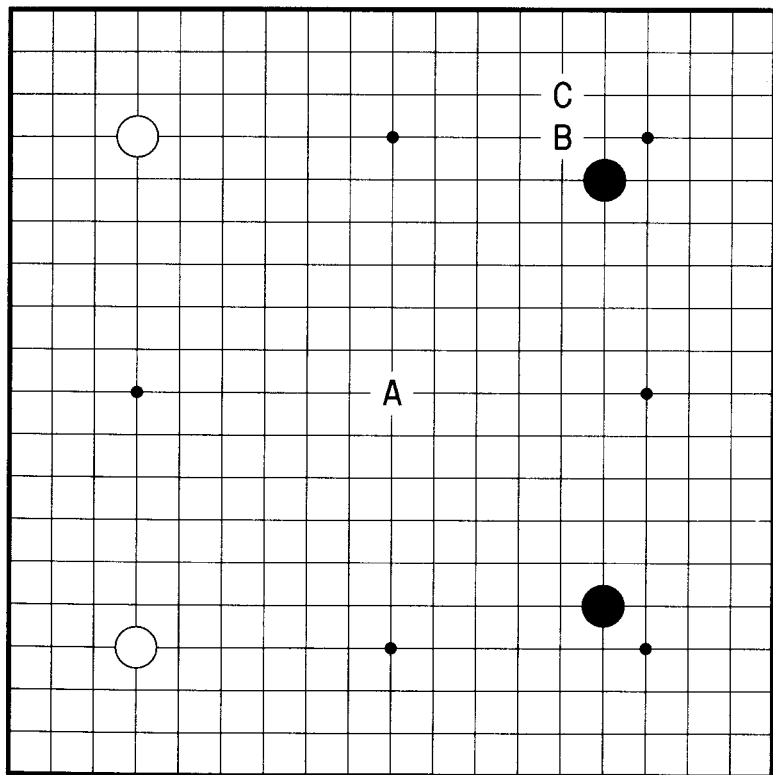
〈2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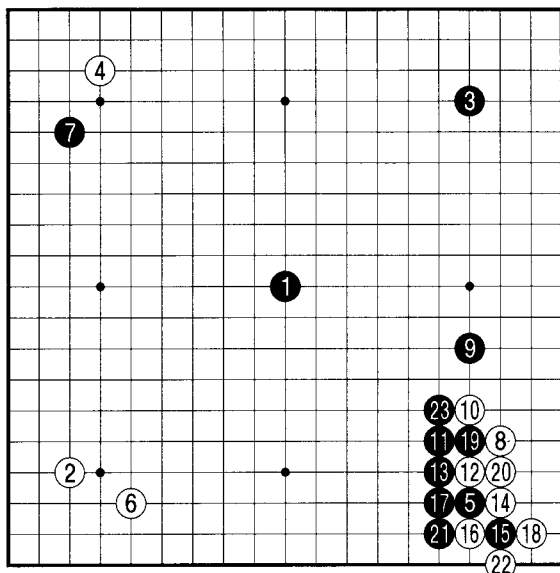
2보(19~31)

백이 30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흑도 31로 삭감겸 확장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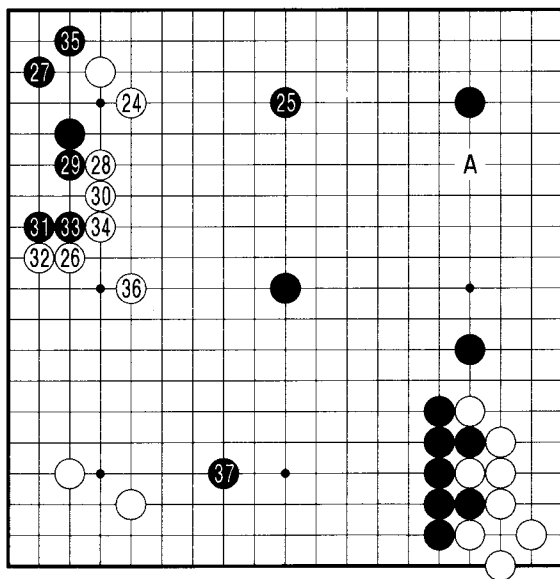
천원, 5·五, 대고목, 대외목 포석 — 극단적인 세력형 포진

흑이 양귀 모두 5·五에 착점한 모습이다. 흑으로서는 A의 천원, B의 대고목, C의 대외목에 착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착점들은 한결같이 귀보다는 변과 중앙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실전진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1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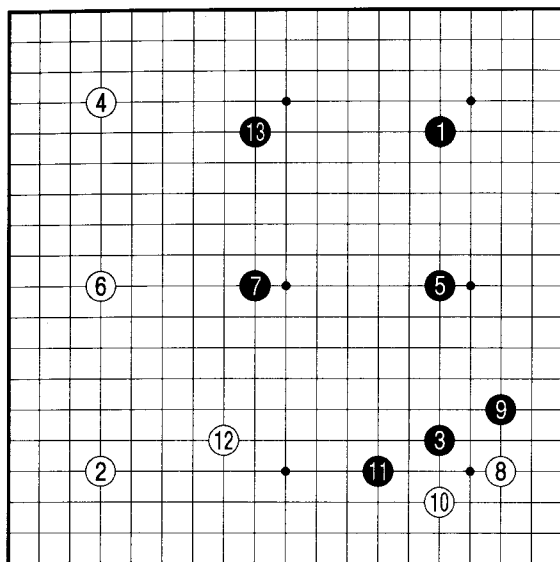
〈2보〉

1보(1~23)

바둑의 이론가 가지와라 다케오 9단도 천원 바둑을 시도한 적이 꽤 있다. 아무튼 바둑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던 기사들에게서는 새로운 포석의 시도가 빈번했던 것이다.

2보(2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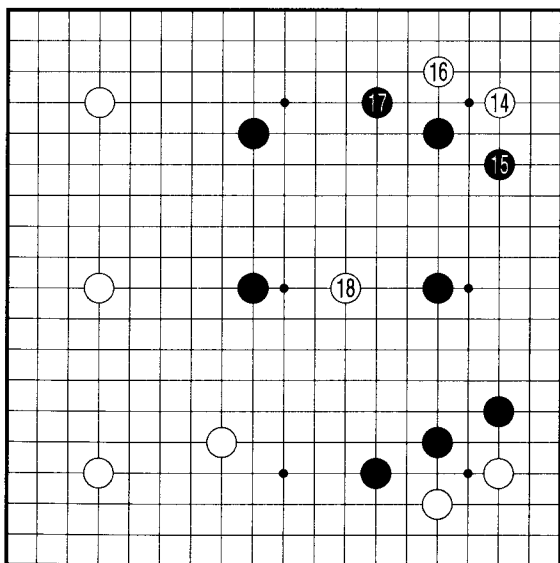
흑25로 포진하고 좌상귀를 유린한 수법은 실리 부족을 피하려는 착상이다. 선수를 잡아 흑37로 확대한 수는 천원과 우하의 세력을 의식한 착점이다. 이 수로는 A로 지킬 수도 있다.



〈1보〉

1보(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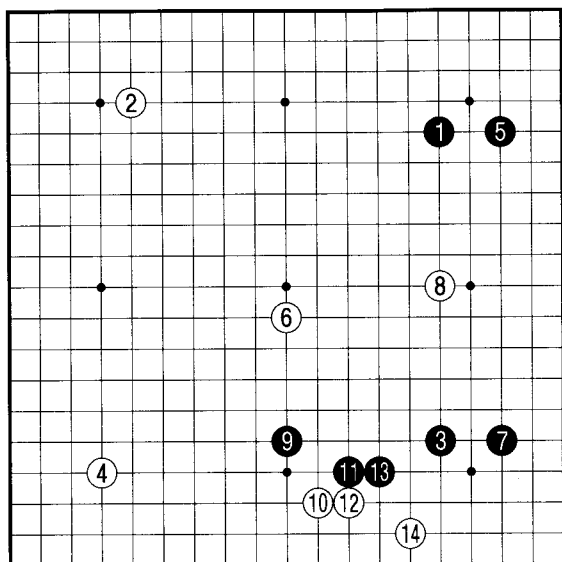
신포석 시대에는 5·五의 착수도 빈번했다. 이 바둑은 1934년 백의 우칭위엔 5단(당시)을 상대로 기타니 미노루 5단(당시)이 구사한 흑의 5·五 포석이다.



〈2보〉

2보(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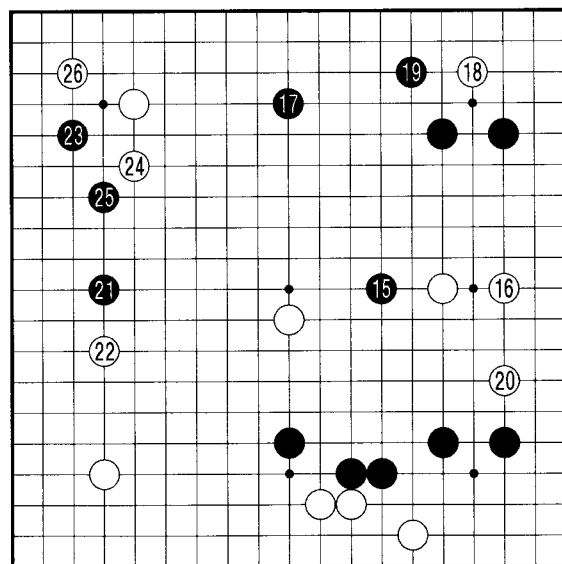
바둑의 양상으로 보아 흑은 극단적인 세력으로 흐르고 있다. 백18로 침입하여 전투가 벌어지는 진행이다.



〈1보〉

1보(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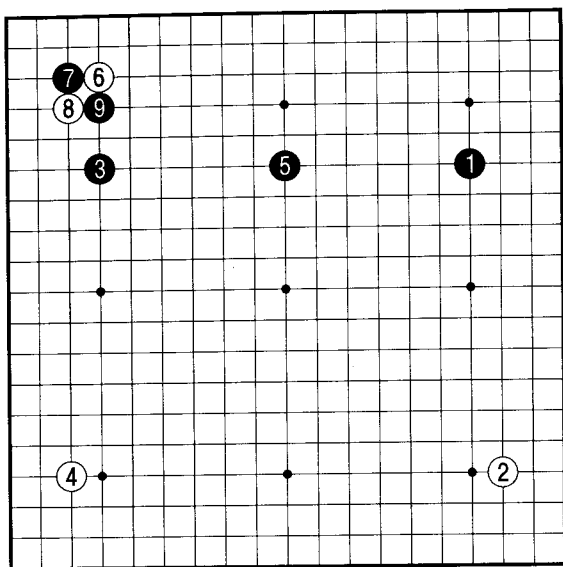
이 바둑은 1934년 백의 이와모토 가오루 6단(당시)을 상대로 오노다(小野田天代太郎) 6단(당시)이 구사한 5·五 포석이다. 흑5·7의 지킴에 대해 백6·8의 응수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2보〉

2보(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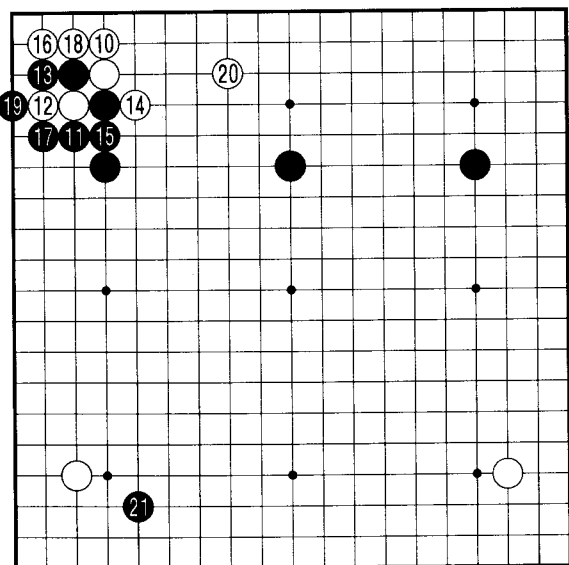
흑의 중앙작전을 견제하려 고심한 이 바둑은 보람없이 백이 불계패로 지고 말았다.



〈1보〉

1보(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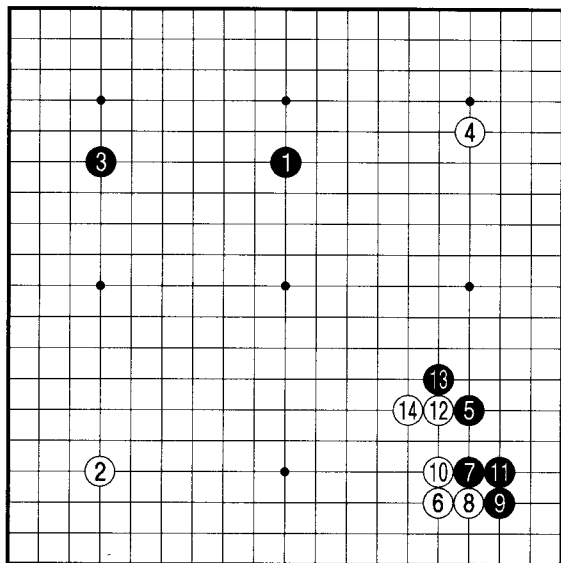
이 바둑은 중국식 포석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던 1972년에 백의 스즈키(鈴木五郎) 7단(당시)에게 시라에(白江治彦) 5단(당시)이 구사한 대고목 포석이다 양 대고목과 더불어 변의 흑5가 이채롭다.



〈2보〉

2보(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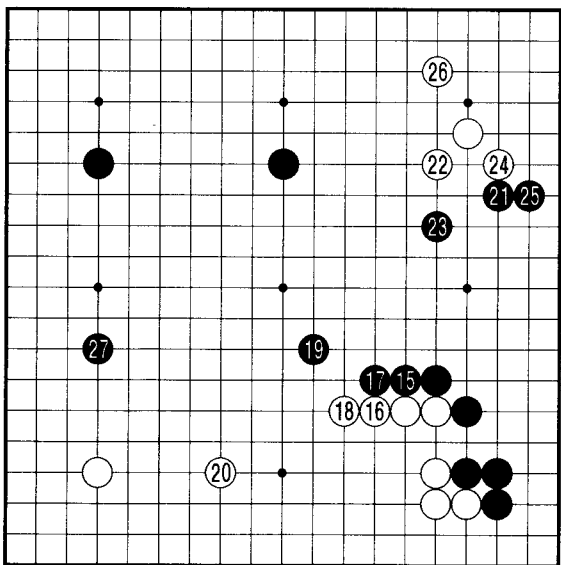
이 진행은 흑이 기존 착점을 백의 공격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1보〉

1보(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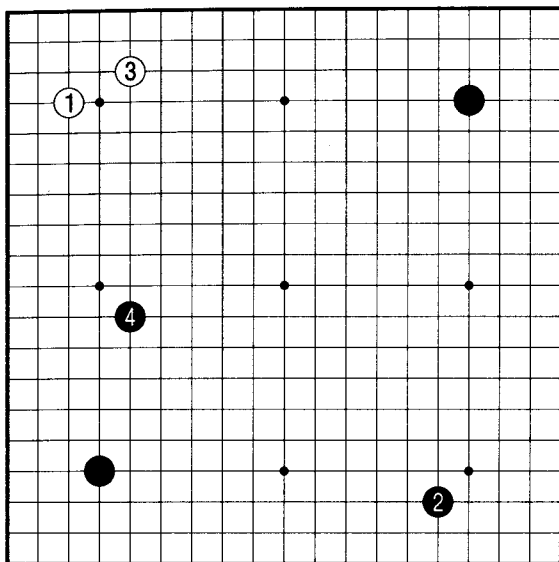
이 바둑은 1971년 백의 이시다 아키라(石田章) 4단(당시)을 상대로 시라에(白江治彦) 5단(당시)이 구사한 대고목 포석이다. 백4의 방해에도 흑5로 고집스럽게 대고목을 두고 있다. 흑9에 백10으로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중앙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2보〉

2보(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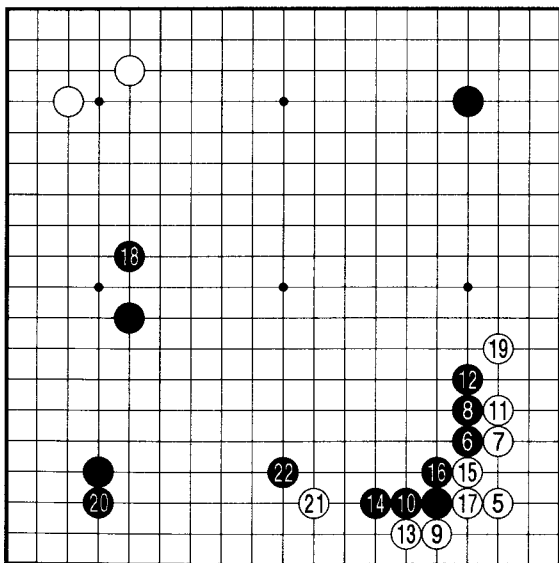
흑19의 자세가 좋고 25까지 된 다음 흑27로 전개하는 흐름을 얻게 되어 흑이 앞서 나가고 있다.



〈1보〉

1보(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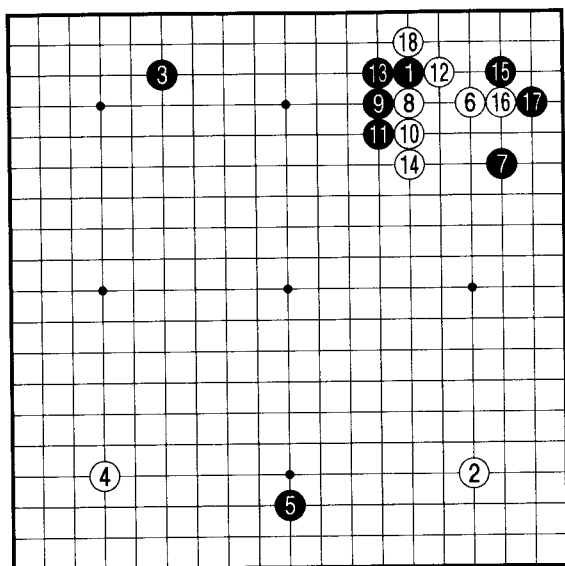
이 바둑은 1973년 6기 일본 프로-아마 대항전에서 후지사와 호사이 9단에게 니시무라(西村修)가 2점으로 둔 바둑이다. 흑 4의 전개가 신선하다.



〈2보〉

2보(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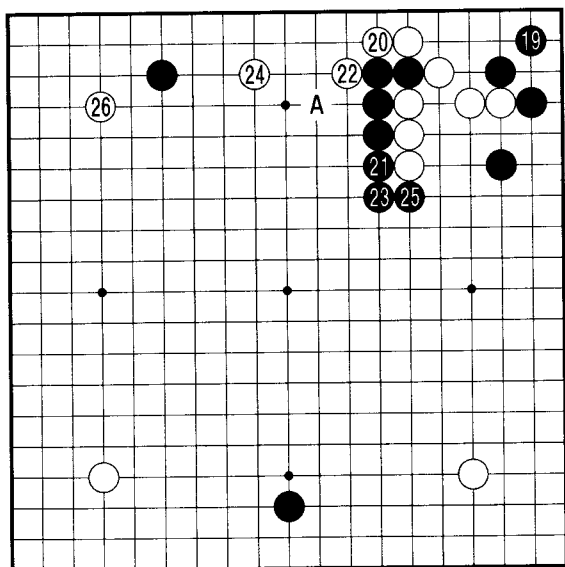
백5에 대해 압박하는 정석을 선택한 흑은 다시 18로 확장하고 백21의 침입에 대해 흑22로 씌워가는 흐름이 무모한 듯 보이지만 일관성이 있다. 이 바둑은 흑이 완승했다.



〈1보〉

1보(1~18)

3기 한국 이동통신배 본선에서 유창혁 6단(당시)에게 흑의 양건 3단(당시)이 시도한 양 대외목 포석이다. 흑7로 양협공한 시점에서 일반 정석으로 환원되고 있다.



〈2보〉

2보(19~26)

흑21은 A로 두는 것이 나왔다. 흑25로 중앙을 봉쇄했지만 백26을 당하여 고전이다.